

광주세계수영

2

2019년 7월 24일 수요일

스포츠동아 제3131호

광주수영대회선 어떤 일이…

몸 아픈 레데키 200m·1500m 기권

2019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 여자 자유형 400m 금메달을 놓친 ‘여제’ 케이티 레데키(미국)가 23일 남부대 시립국제수영장에서 열린 200m 예선(오전)과 1500m 결선(오후)을 포기했다. 미국수영연맹은 “광주 입성 후 몸이 좋지 않았던 레데키가 대표팀 의무진과 상의해 이날 일정을 기권한다”고 밝혔다. 이번 대회 자유형 3개 종목(400·800·1500m) 4연패에 도전하려던 레데키는 21일 400m 결승에서 3분59초97로 골인, 3분58초76에 터치패드를 찍은 아리안 티트머스(호주)에 정상을 내줘 원대한 꿈이 물거품이 됐다. 레데키가 컨디션을 회복할 경우, 26일(예선)과 27일(결선) 펼쳐질 800m에 출전한다.

바흐 IOC위원장 경영 경기 관전

토마스 바흐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위원장이 23일 2019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 현장을 찾았다. 대회조직위원회에 따르면 바흐 위원장은 전세기편으로 인천국제공항을 거쳐 이날 오후 무안공항에 도착, 광주로 향했다. 바흐 위원장은 광주 라마다호텔에서 열린 국제수영연맹(FINA) 부로 회의에 참석하고 오후 8시부터 남부대 시립국제수영장에서 진행된 주요 경영경기를 관전했다. 그는 광주에서 하루 머물고 24일 일본으로 떠나 2020도쿄올림픽 개막 D-1년 관련 행사에 참석한다. 바흐 위원장이 한국을 찾은 것은 문재인 대통령에게 올림픽훈장 금장을 수여하기 위해 방문한 지난해 8월 이후 11개월 만이다.

한국수영, 23일 경영 예선 모두 탈락

한국수영이 23일 남부대 시립국제수영장에서 끝난 2019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 경영 예선에서 전부 탈락했다. 문재권(서귀포시청)은 남자 평영 50m 예선에서 27초57, 23위를 기록했고 여자 자유형 200m에 출전한 조현주(울산광역시청)도 2분03초16으로 32위에 그쳐 준결선에 오르지 못했다. 남자 접영 200m에 나선 김민섭(여수문수중)은 2분00초95에 터치패드를 찍었으나 32위에 머물렀고 남자 자유형 800m에 도전한 김우민(부산체고)은 8분14초44를 기록하며 31위로 밀렸다. 지금까지 경영 종목에서 예선을 통과한 건 여자 개인혼영 200m 결선에서 6위를 차지한 김서영(경북도청·우리금융그룹)이 유일하다.

수영연맹, 대표팀 미흡한 지원 사과

2019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에 나선 대표팀 선수들에 대한 미흡한 지원으로 논란을 빚은 대한수영연맹이 23일 “선수들의 노고와 기대에 비해 이번 대회를 제대로 준비하지 못한 점, 머리 숙여 사과드린다”는 공식 사과문을 발표했다. 연맹은 후원사 계약이 늦어졌다는 이유로 ‘KOREA’가 새겨지지 않은 유니폼을 배부해 개최국 체면을 구겼고, 규정에 맞지 않는 수영모를 지급해 일부 선수들이 실격 위기에 처했다. 연맹은 “예기치 못한 연맹의 부주의, 소홀한 관리로 큰 과오를 범하게 됐다”고 고개를 숙였다.

편집 | 안도영 기자 do02@donga.com

남자자유형 200m, 1위로 들어온 다나스 랍시스 부정출발로 실격



1 쏬양이 23일 광주 남부대 시립국제수영장에서 열린 '2019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 남자 자유형 200m 결승에서 행운의 우승을 차지한 뒤 웃고 있다. 그러나 경쟁자들의 진심어린 축하하는 이번에도 받지 못했다. 2 공동 동메달을 획득한 덩컨 스콧은 도핑 논란이 있는 쏬양과 기념 촬영을 보이콧했다. 왼쪽부터 은메달을 차지한 카츠히로 마츠모토, 쏬양, 공동 3위 마르틴 말류틴, 스콧. 광주 | 뉴스시스

2위로 터치한 쏬양 ‘행운의 금메달’

1분 44초 93…400m 이어 2관왕
세계선수권 통산 11번째 금메달
경쟁자들 철저히 외면 ‘반쪽 영광’
쏬양, 오늘 800m서 3관왕 도전장

쏬양(중국)이 개인 통산 11번째 세계선수권대회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쏬양은 23일 남부대 시립국제수영장에서 열린 2019 국제수영연맹(FINA)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 남자 자유형 200m 결승에서 1분44초93에 터치패드를 찍었다. 다나스 랍시스(리투아니아)가 가장 먼저(1분44초69) 도착했으나 부정출발로 실격(DSQ)됐고 행운의 금메달을 차지했다. 21일 자유형 400m에서 3분42초44를 기록, 이 종목 최초 4연패를 달성한 쏬양

은 이로써 대회 2관왕에 등극했고 2년 전 헝가리 부다페스트 대회에 이어 2회 연속 정상을 밟았다. 2007년 호주 멜버른부터 광주까지 7회 연속 세계선수권에 참여한 그는 멜버른 대회를 제외한 나머지 무대에서 꾸준히 메달을 수확했고 금1·은2·동3개를 땀다. 쏬양은 2016리우데자네이루올림픽에서도 200m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200m 예선을 2위(1분46초22)로 통과한 쏬양은 준결선도 2위(1분45초31)로 끊었으나 결선에서는 좀더 페이스가 좋았다. 부다페스트 대회에서 세웠던 자신의 최고기록(1분44초39)은 넘지 못했으나 시상대 꼭대기에 섰다. 이날 오전 자유형 800m 예선에 나선 여파가 우려했으나 성적에 따라 배정된 5번 레인에 나선 쏬양은 과감하게 물살을 갈랐다. 0.73에 스타트를 땀 그는 50m

8위, 100m까지 6위에 머물다 반환점을 돌며 속도를 붙여 1위(1분18초33)로 150m를 끝냈다. 운명은 마지막에 갈렸다. 간발의 차로 2위에 들어왔으나 랍시스의 실격으로 1위가 됐다. 그러나 논란만 더 커졌다. 쏬양은 환영받는 존재가 아니다. 2014년부터 불거진 금지약물 논란 탓이다. 미국·호주 등 서방세계는 끊임없이 의혹을 제기한다. 리우올림픽 당시 “금지약물 선수와 인사할 수 없다”며 쏬양을 저격한 맥 호튼(호주)과의 악연도 계속됐다. 호튼은 이번 대회 400m에서 쏬양에 이은 2위로 골인했으나 시상대에 오르길 거부하고 기념촬영도 피했다. 대부분의 선수들은 “용기 있는 행동”이라며 호튼을 지지한 반면, 분위기를 파악하지 못한 FINA는 호튼에게 경고서를 보내 비웃음만 샀다. 200m 우승 후 가

슴을 주먹으로 두드리면서 기뻐하는 쏬양에게 대부분이 축하 인사를 건네지 않은 채 경기장을 빠져나갔다. 시상식에서도 묘한 기류가 흘렀다. 2위(1분45초22) 카츠히로 마츠모토(일본), 공동 3위(1분45초63) 마르틴 말류틴(러시아)은 함께 기념촬영을 했으나 또다른 공동 3위 스콧 던컨(영국)은 시상대와 촬영을 전부 거부해 호튼과 같은 길을 걸었다. 관중도 나뉘었다. 오성홍기를 흔들고 “짜요(힘내라)”를 외치며 쏬양을 응원한 중국 팬들을 제외한 나머지는 휘파람과 야유를 보냈다. 한편 쏬양은 24일 오후 자유형 800m에서 세계선수권 3관왕을 노린다. 2013년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3관왕(400·800·1500m)에 오른 뒤 6년 만의 재도전이다.

광주 | 남정현 기자 yoshike3@donga.com

남자수구 ‘꿈의 1승’…이젠 도쿄다

〈2020 도쿄올림픽〉

내년 2월亞 챔피언십서 쿼터 노려
티켓은 1장…카자흐·中·이란 꺾야
강호들 상대로 많은 스팅킹은 필수

한국 남자수구가 세계무대에서 큰 역사를 썼다. 대표팀은 23일 남부대 수구경기장에서 열린 2019 국제수영연맹(FINA) 세계수영선수권대회 남자수구 15·16위 결정전에서 뉴질랜드를 승부 던지기로 제압, 목표포 잡았던 ‘꿈의 1승’에 성공했다. 1~4쿼터까지 12-12 동점을 이룬 가운데 진행된 승부 던지기에서 5-4로 승리한

한국은 목표 달성과 함께 유종의 미를 거뒀다. 그리스, 세르비아, 몬테네그로와 맞선 조별리그에서 3전패한 뒤 카자흐스탄과 순위 결정전에서도 4-17로 패했으나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값진 승리를 챙겼다. 개최국 자격으로 세계선수권에 처음 나선 한국은 15위로 대회를 마쳤고, 올해로 7번째 도전한 뉴질랜드는 최하위로 여정을 끝냈다. 대표팀의 다음 목표는 2020도쿄올림픽 본선이다. 내년 2월 카자흐스탄 아스타나에서 열릴 아시아 챔피언십에서 쿼터 확보에 나선다. 쉽진 않다. 강호 일본이 올림픽

개최국으로 자동 출전을 확보한 가운데 아시아에 남은 티켓은 한 장이다. 카자흐스탄, 중국, 이란을 눌러야 한다. 대표팀이 승재 코치(47)는 대회 종료 후 공식 기자회견에서 “자격으로 올림픽에 나갈 수 있도록 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제경험이 필수다. 다행히 올림픽이 임박한 만큼 10월 FINA가 주최하는 싱가포르 국제대회에 참가할 예정이나 강호들과의 꾸준한 스팅킹은 수시로 이뤄져야 한다. 한국은 1986년 서울, 1990년 중국 베이징에서 개최된 아시안게임에서 각각 은·동메달을 획득했다. 그러나 이후 빠르게 쇠퇴했다. 그 사이 구조련에서 독립한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스탄 등이 90년대 중반을 기점으로 치고 올라왔다.

“작실히 국제경험을 쌓을 수 있다면 분명 크게 좋아질 것”이라는 게 이 코치의 이야기다. 제자들의 생각도 같다. 권영균(32·강원수영연맹)은 “최대한 경험치를 올려야 한다. 경기를 뛰면서 성장을 느낀다. 국제대회는 어디든 출전해야 발전이 가능할 것”이라고 했다. ‘캡틴’ 이선욱(32·경기도청)은 “몸으로 부딪히며 상황대처 능력을 키울 수 있다”고 전했다. 현실적인 고민도 있다. 병역 문제다. 국군체육부대(상무)에서 복무하는 타 종목들과 달리 수구는 군 팀이 없다. 뉴질랜드와 승부 던지기에서 멋진 선방을 한 골키퍼 이진우(22·한체대)는 “군 팀이 생겼으면 한다”는 바람을 전했다. 광주 | 남정현 기자

“몇날 며칠 뛰는 연기…지쳐서 눈물 쏟았죠”

‘엑시트’ 주연배우 윤아 ▶1면에서 이어집니다

●“20대의 고민? 나라고 예외는 아니다” 영화 ‘엑시트’는 단순히 재난영화에 머물지 않는다. 취업 전선에 나선 20대 청춘의 ‘잔내’ 나는 생존기이기도 하다. 윤아가 연기한 의주와 상대역 용남(조정석)은 대학 산악동아리 선후배 사이. 의주는 오랜 공부를 접고 연희업체에 취직했고, 용남은 번번이 취업에 실패해 가족의 구박을 받는 처지다. 둘은 용남 어머니 칠순잔치에서 재회해 도시를 뒀던 유독가스를 피해 건물 옥상을 넘나들며 뛰고 구른다. 10년간 소녀시대의 안무를 통해 체력을 다

진 윤아조차 눈물을 쏟 뺄 정도로 극한의 체력이 요구된 촬영이었다. 촬영을 시작하기 전 클라이밍을 배우고 액션스쿨에서 영화에 필요한 장면을 익혔다는 윤아는 “와이어 액션은 어떻게든 해볼 수 있었지만, 몇날 며칠 뛰는 장면을 연기할 땐 너무 지쳐 촬영장 한쪽에서 눈물을 쏟았다”고 털어놨다. 두 다리의 근육이 뭉칠 대로 뭉쳐 걸을 때마다 극심한 고통이 따랐다. “영화에서처럼 재난의 상황까지는 아니어도 힘든 순간이 닥치면 감정보다 이성적으로 생각하려는 편이에요. 의주와 어떤 면이 닮았느냐고요? 모든 면에서 의주는 저

보다 용감하고 멋있어요, 생각을 바로 행동으로 옮기니까요.” 영화에서 윤아는 이성의 상대에게도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한다. 실제 연애했 때 모습과 얼마나 닮았는지 물었더니 “의주처럼 과감하지 않아도 (상대에게)호감을 굳이 숨기지는 않는 편”이라고 했다. 화려한 스포트라이트 속에 20대를 보낸 윤아이지만 그 역시 고민이 없는 건 아니었다. ‘엑시트’의 두 주인공처럼 취업이 안돼 고통 받거나 갓 입사한 회사에서 겪는 어려움을 직접 경험하지 않았지만 또래의 고민은 자신을 비껴가지 않았다고 했다. “제가 하는 일이 특수한 분야이긴 해도, 20대가 느끼는 고민이나 감정과 동떨어졌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직장생활을 직접 체험하지 않아도 친구들로부터 많은 이야기들을

기도 했고요. 늘 시야를 열어두려고 하죠.” 다만 치열하게 일하면서 20대를 보낸 탓에 개인적인 추억이 없는 건 아쉽기만 하다. “대학 때 제가 학교 식당에서 밥 먹고 있으면 다른 학과 학생들이 와서 보고 그랬거든요. 친구들과 수업도 더 받고 추억도 만들었다면 어떨까 싶죠. 종교교 팬 방송반 활동을 꼭 하고 싶었는데… 점심시간에 마이크 잡고 곡 소개하는 걸 꼭 하고 싶거든요. 하!” 31일 개봉을 앞둔 ‘엑시트’가 호평을 받고 있어서인지, 경험의 여유 덕분인지 윤아는 인터뷰 내내 웃음을 거두지 않았다. “어떤 작품에 참여하던 ‘잘 어우러지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는 그는 “데뷔 초 낯가림은 어느새 사라지고 지금은 사람들에게 먼저 다가간다”고 했다.